

12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Chapter

요 11:1~44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16장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오늘 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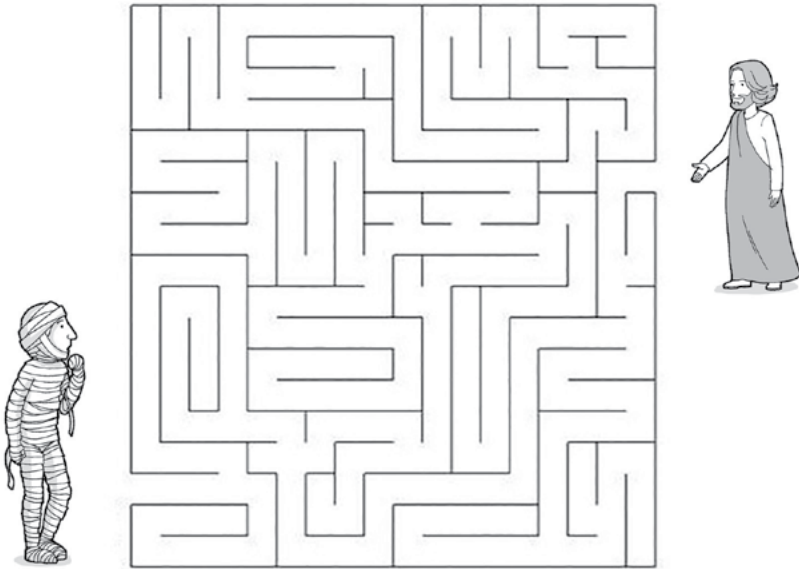


말씀

1.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2.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생활 가운데 내가 죽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압니다.

마음 열기

나사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찾아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 11:43~44)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예루살렘에서 오리즘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내려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르가 죽을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어 있을지라도 실상은 잠자고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깨우시면 언제라도 다시 살아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르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르가 죽은지 나흘이 된 때였고, 이미 장사가 끝나 시신이 굴로 된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옮겨 놓게 하신 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하고 죽은 나사르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르가 살아서 바로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르를 살리신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영생을 얻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5~27)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may die, he sha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She said to Him, "Yes,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n 11:25~27)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엨 2:1)

(엨 2:4~5)

(요 6:63)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요한복음 5장 19~29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잘 읽은 후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하시면서 20절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가나안 정복 등 역사상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들이 많은데 이보다 더 큰일이란 과연 무슨 일을 말하는 걸까요? 21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2.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말의 의미는 육신을 살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까지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24절과 25절을 읽고 적어 봅시다.
3.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뿐 아니라 또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 받은 이 권세는 무엇인지 22절과 27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4.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러한 권세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5.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다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큰 일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최대의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름들을 적어보세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매일 기도드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미 다
용서해 놓았
느니라.

하나님! 오늘은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다
용서했노라.
네 죄를 깨끗이
사했노라.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저는 역시
지옥 갈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미 다
용서해 놓았다
하지 않았느냐?

주여!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이 죄를 어찌
하오리까!



다 용서해
놓았느니라!
이 녀석을
어찌할꼬~?!

당신은 지금, 매일 구원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셨 느니라 (히 9:26)**

예, 여기 있습니다!

크리미아 전쟁 때 스푸타리의 어느 병원에서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지 켜보았으나 분명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간호사들이 깜짝 놀랄만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기진하여 숨을 헐떡이는 그를 침대에 다시 눕히고 부드럽게 위로한 후, 그에게 무슨 일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전쟁이 끝나서 내 부대로 돌아가 점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님이 내 이름을 부르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은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